

마태 18

- 1.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.....1
- 2. 왕께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에 대해 경고하심.....3
- 3. 잃어버린 양의 비유.....4
- 4. 범법하는 형제를 대하는 방법.....5
- 5.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.....7

1.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

(마 18:1) 바로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이르되, 하늘의 왕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까? 하매

(마 18:2)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

(마 18:3) 이르시되,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,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.

(마 18:4)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곧 그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.

(마 18:5)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느니라.

(마 18:6)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의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리라.

(막 9:33) 그분께서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에 그들에게 물으시되,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너희끼리 논쟁하였느냐? 하셨으나

(막 9:34)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그들이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하는 일로 자기들끼리 논쟁하였기 때문이라.

(막 9:35) 그분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, 어떤 사람이 첫째가 되고자 하면 바로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의 말뚝이 되며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, 하시고

(막 9:36)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의 한가운데 세우시고 그를 팔에 안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,

(막 9:37)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들 중의 하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, 하시니라.

(눅 9:46) 그때에 그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하는 일로 논쟁이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매

(눅 9:47)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며

(눅 9:48) 그들에게 이르시되,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아이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또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나니 너희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 곧 그가 큰 자가 되리라, 하시니라.

2. 왕께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에 대해 경고하심

(마 18:7) 실족하게 하는 일들로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으리로다!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로되 실족하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!

(마 18:8) 그러므로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들을 찍어 네게서 내버리라. 네가 절뚝거리거나 불구가 된 채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존하는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네게 더 나으니라.

(마 18:9) 만일 네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네게서 내버리라. 네가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네게 더 나으니라.

(막 9:42)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의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니라.

(막 9:43) 만일 네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내버리라.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네게 더 나으니

(막 9:44)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.

(막 9:45) 만일 네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내버리라. 절뚝거리며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네게 더 나으니

(막 9:46)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.

(막 9:47) 만일 네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내버리라. 한 눈으로 [하나님]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네게 더 나으니

(막 9:48)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.

(눅 17:1) 그때에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,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 일들을 일으키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!

(눅 17:2) 그가 이 작은 자들 중의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니라.

3. 잃어버린 양의 비유

(마 18:10) 너희가 이 작은 자들 중의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.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,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[아버지]의 얼굴을 항상 바라보느니라.

(마 18:11) 사람의 [아들]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.

(마 18:12)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? 만일 어떤 사람에게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것들 중의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그가 아흔아홉 마리를 남겨 두고 산으로 들어가 길 잃은 그 양을 찾지 아니하느냐?

(마 18:13)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, 그가 만일 그것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아흔아홉 마리보다 그 양으로 인하여 더 기뻐하리라.

(마 18:14) 이와 같이 이 작은 자들 중의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[아버지]의 뜻이 아니니라.

(눅 15:1) 그때에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그분께 가까이 나아오니

(눅 15:2)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르되,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, 하더라.

(눅 15:3)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,

(눅 15:4) 너희 중의 어떤 사람에게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가 그것들 중의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아흔아홉 마리를 광야에 남겨 두고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?

(눅 15:5) 또 그가 그것을 찾은즉 기뻐하며 그것을 자기 어깨에 메고

(눅 15:6) 집에 돌아와서 자기 친구와 이웃들을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, 나와 함께 기뻐하라.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노라, 하리라.

(눅 15:7)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,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아흔아홉 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.

4. 범법하는 형제를 대하는 방법

(마 18:15) 또한 만일 네 형제가 네게 범법하거든 가서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에 그의 허물을 그에게 일러 주라. 만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었느니라.

(마 18:16) 그러나 만일 그가 네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하라.

(마 18:17) 만일 그가 그들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.

(마 18:18)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,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,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.

(마 18:19)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, 너희 중의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[아버지]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.

(마 18:20)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, 하시니라.

5.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

(마 18:21) 그때에 베드로가 그분께 나아와 이르되, [주]여,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하리이까? 일곱 번까지 하리이까? 하매

(마 18:22)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,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까지가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까지 하라.

(마 18:23)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종들로부터 회계 보고를 받으려 하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.

(마 18:24) 그가 계산을 시작할 때에 그에게 만 달란트 빚진 한 사람이 그에게 끌려왔으나

(마 18:25) 그가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의 주인이 그에게 명령하여 그와 그의 아내와 자녀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갚게 하니

(마 18:26) 그러므로 그 종이 엎드려 주인에게 경배하며 이르되, 주인이여, 나를 참아 주소서. 내가 주인께 다 갚겠나이다, 하거늘

(마 18:27) 이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풀어 주며 그에게 그 빚을 용서해 주니라.

(마 18:28) 그러나 바로 그 종이 나가서 자기 동료 종들 중에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 그를 붙들어 멍살을 잡고 이르되, 네가 빚진 것을 내게 갚으라, 하매

(마 18:29) 그의 동료 종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간청하여 이르기를, 나를 참아 주게. 내가 자네에게 다 갚겠네, 하되

(마 18:30) 그가 허락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서 그가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니라.

(마 18:31) 이에 그의 동료 종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자기들의 주인에게 가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고하니

(마 18:32) 그때에 그의 주인이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, 오 악한 종아, 내가 내게 애걸하기에 내가 네게 그 모든 빚을 용서해 주었은즉

(마 18:33) 내가 너를 가엾게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 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아니하느냐? 하고

(마 18:34) 그의 주인이 노하여 그가 자기에게 진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형벌 주는 자들에게 넘겨주었느니라.

(마 18:35)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[아버지]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, 하시니라.